

美상원, 또 예산안 부결... 섣다운 최장기록 경신

찬성54·반대44표 민주당 반대 입장 유지... 14번째 부결 트럼프, 지난주 이어 다시 '핵옵션' 언급하며 공화당 압박 항공·복직 등 피해 확산... 지방선거 결과 분수령될지 주목

미 상원 회의에서 예산안이 또 한차례 부결되면서 섣다운이 최장기록을 경신했다. 국민 체감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영공이 폐쇄된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4일(현지시간) 열린 미 상원 회의에서 정부 지속예산 및 연장조치를 담은 법안의 투표가 이루어졌다. 표결 결과 찬성54표, 반대44표로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했다. 이번이 14번째 예산안 부결이다.

10월1일부터 시작된 해당 법안은 양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상원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정부를 정상 가동한 다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정치적 공방은 계속됐다. 회의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이 내년 선거(2026 중간선거)가 끝날때까지 협상을 미루고 있다"며 '시간끌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건강보험과 복지 예산을 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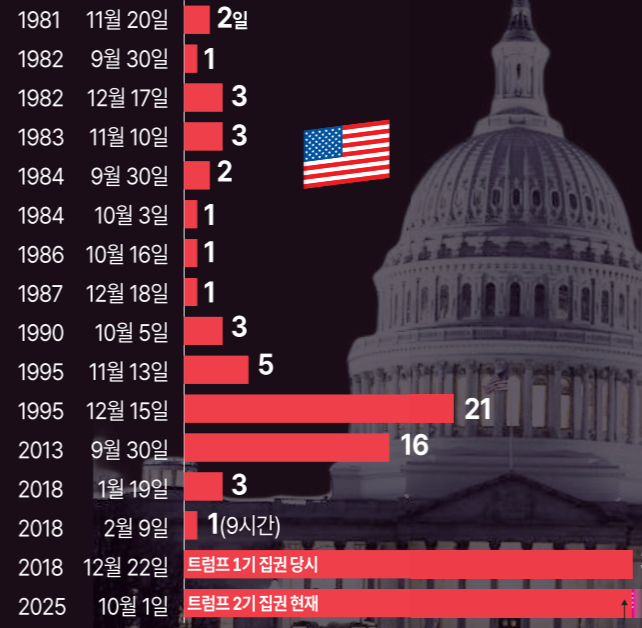
치게 삭감하고 있고 본격적인 정책 협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부 재개를 먼저 하자"는 목소리와 "지금 타협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정책이 희석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법안이 또 다시 부결되면서 섣다운이 종료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4일 치러진 지방선거 일정이 겹치면서 지금 협상 타결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지층 결집에 손해가 갈 수 있어 타협을 미루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핵 옵션을 주장하며 공화당을 압박했다. 트럼프는 4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중간선거도, 다음 대선도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미치광이들이 자기들 표로 모든 것을 막아버린다면 어떤 정책도 통과시킬 수 없고 공화당이 그



미 연방정부 역대 '섣다운' 일수
자료:미국의회보고서 등 워신 종합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핵 옵션 사용을 공화당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핵옵션'은 의사규칙을 변경해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의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51명)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 제도를 사용하면 다수당이 원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상원의 전통적인 협치 문화를 파괴해 정치적 과장이 커 '핵옵션'으로 불린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요구에도 의회의 원칙

을 깨면 향후 자신들에게 부대미리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핵옵션 사용을 꺼리고 있다.

항공 운송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영공 폐쇄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관세사 부족은 만성적인 문제였는데 섣다운으로 결근 관세사가 증가하며 상황이 악화됐다. 손더피 교통부 장관은 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안전을 위해 전체 영공을 폐쇄할 수 있다. 사람들이 비행기로 이동하

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달 27~30일 추수감사절 항공 특수를 앞두고 있어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항공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식비 지원, 공무원 급여 지급, 행정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미 의회에 산국(CBO)은 섣다운이 6주 지속될 경우 미국 경제에 11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집권 2기 들어 최저

치를 기록했다. CNN방송이 3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 중 61%는 트럼프의 섣다운에 대한 대처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각 정당의 지도부가 섣다운 사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58%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뉴욕 증시가 하락 분위기를 탄 데도 섣다운 장기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가 섣다운 사태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선거는 뉴욕버지니아뉴저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치러지지만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변화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된다. 이번 선거 승자는 선과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최장기록이었던 35일간의 섣다운은 트럼프1기 당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론이 악화되고 피해가 커지자 트럼프가 요구한 57억 달러의 장벽 건설 비용을 제외한 임시예산안이 통과됐고 트럼프도 수용하면서 섣다운이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악화하는 민심 앞에서 결국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선민 기자 smkim@skyedaily.com

다카이치 총리, 내각 지지율 82%... 출범 2주 만에 '고공 행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이 지난 달 21일 출범한 지 2주 만에 지지율 80%를 넘었다.

일본 도쿄 TBS방송 뉴스네트워크(JNN)가 이달 1~2일 전국 성인 26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82%에 달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105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71%)보다 11%p 상승한 수치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3%였다. 특히 젊은층의 지지가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18~29세 88%, 30대 87%, 40대 86%, 50대 85%, 60세 이상 76%로 나타났다.

JNN는 같은 시기 이시바 시게루 전임 총리 내각 지지율(51.6%)을 크게 웃돌

외교 무대 자신있게 데뷔... 젊은층 지지율 88%대 식료품 소비세 0%, 사회보험료 인하 정책 기대감 ↑

며 2001년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출범 초기 지지율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를 상승 배경으로는 취임 직후 시행한 외교 일정이 꼽힌다. 취임 열흘 만에 지난달 31일 미일 정상회담과 이달 2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3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잇따라 소화했다. JNN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 활동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83%, 반대는 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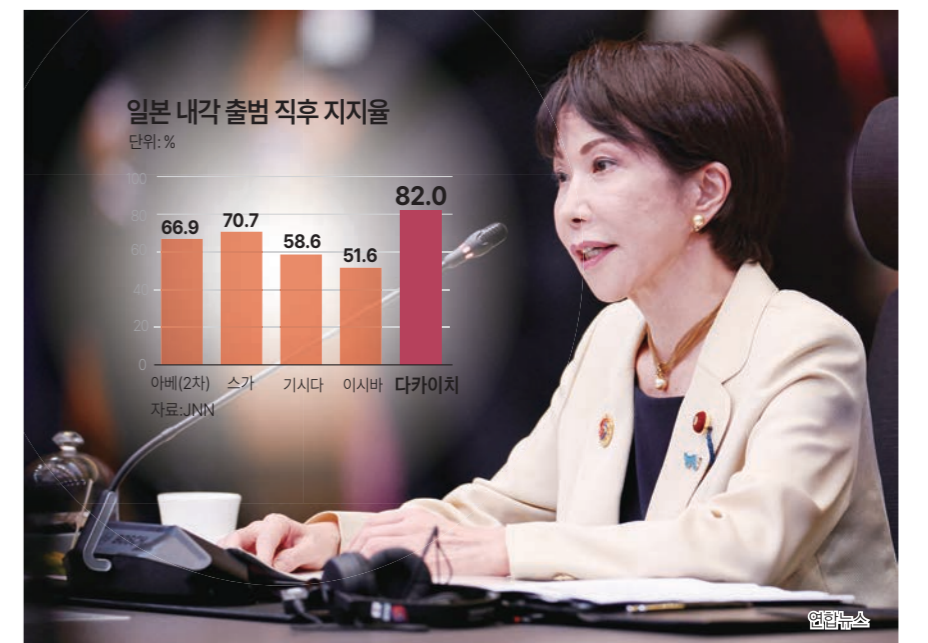
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보수적 노선을 이어가면서도 중국과 한국 등에 대해 현실적인 외교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 무대에서 자신의 언어로 발언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며 '관료식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소통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응답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정책은 △식료품 소비세 제로(0%) 적용 △현역세대 사회보험료 인하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는 응답이 58%로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23%)의 두 배를 넘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가 우에노 후생노동상에 노동 시간 상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 64%, 반대 24%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방위정책에서도 긍정 평가가 이어졌다. 다카이치 총리가 방위비를 2027년 목표치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은 56%, '지지하지 않는다'는 33%로 집계됐다.

다만 정당 지지율은 낮았다. 자민당 지지율이 28.9%,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3.9%였다. 두 당은 중의원 의원 정수를



10% 삭감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연내 성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8%, '연내에 성립시킬 필요가 없다'는 35%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소신 표명 연설에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으로 전략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경진 기자 kyojin@skyedaily.com

아스팔트에서 산화한 열사 김시립표 월약산 도라지즙

동의보감 東醫寶鑑

도라지 桔梗

60봉지 1상자 70,000원

사은행사 4상자 3+1 210,000원

4개 묶음배송 무료배송

다로매송시 각, 4천원씩 택배비 추가

김시립 목사님 사모-남경우

농협계좌 356-1421-4451-03

입금후 문자☎010-2387-9937

동의보감(東醫寶鑑 허준 65세 완성) 1596년(선조 29) 선조의 명을 받아 임진왜란으로 구급용 연해본 편찬 중 선조의 사망에 대한 죄를 물어 귀양살이와 복귀함을 반복하며 1610년(광해군 2) 25권 완성 ▶ 동의보감 길경(桔梗)-청폐거담(淸肺祛痰 맑은 폐 가래제거) (熱邪 祛邪) 기촉(氣促 호흡이 가쁜 것) 폐열(肺熱 폐질환) 면적(面赤-충열) 해수(咳嗽-가래) 비건(鼻乾-코 마름) 비늑(鼻-코피) 흉통(胸痛-가슴통증) 천촉(喘促-기침하고 숨이가쁨) 객혈(咯血-기침에 피를 토함)